

오메~ 단풍 들었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곳,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도시다. 수억 년전 태고의 신비와 대대손손 이어온 천혜의 자연, 변치 않을 역사의 숨결까지 가득한 이 곳, 1300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고창에서 울긋불긋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장면들을 소개한다.

▲선운산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고창군 가을 단풍 여행의 백미는 단연 선운산 단풍이다. 선운사 앞 흐르는 도솔천에 단풍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기 위해 매년 수백만명의 인파가 북적인다. 선운사에서 도솔천까지 이어지는 길은 그 자체가 가을 축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차분한 정취를 즐기며 느긋하게 걷다 보면 힐링이란 단어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단풍을 따라 발길을 옮기다 보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에 닿는다. 높이가 무려 15.7m로 국내 마애불 중 가장 크다. 고려 초기 거대한 마애불 계통 불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가슴의 복장에서 동학농민운동 당시 비밀기록을 발견한 사실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수사와 애기단풍

일주문에서 문수사까지 100m쯤 되는 짧은 길에 100년생부터 최고 400년생 거목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빼곡하다. 다른 지역의 단풍보다 잎이 작고 색깔이 고와 일명 '애기단풍'으로 불린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수사의 명소 애기단풍 나무숲은 선운사의 가을 풍경과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단풍나무 외에도 고로

쇠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노거수들이 혼재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을 선사한다.

오는 이마다 '좋다, 좋다'를 연발하고 숲 길 걷는 곳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품을 내어주는 문수산, 단풍나무 숲으로는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신비롭고 붉은 가을빛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둘러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관광 코스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기획·운영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찾아다니는 재미와 그 속에서 가을의 고창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다.

먼저, 당일코스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7가지 보물을 찾아서' 코스는 전봉준장군 동상과 관소리박물관, 고인돌유적지, 운곡람사르습지, 병바위, 선운사, 갯벌센터를 거치는 일정이다. '무르익은 색깔의 향연 가을속으로' 코스는 고창읍성과 관소리박물관, 병바위, 선운사, 농약전수관, 학원농장을 거치는 일정이다. 당일 코스로 고창으로 떠나보는 알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선운산

선운산 단풍, 가을 단풍여행의 '백미' 일주문에서 문수사까지 가는 길목에 최고 400년생 거목 단풍나무 '빼곡' 잎이 작고 색깔 고운 애기단풍도 매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물 찾는 재미 고창읍성·운곡습지도 빼놓을 수 없어

고창읍성의 가을 풍경



문수사와 애기단풍

덧붙여 1박2일 코스는 1일차에 관소리박물관, 병바위, 선운산 등을 거치고, 2일차에 고인돌유적지, 운곡람사르습지, 갯벌센터를 관광하는 일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가을 행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7가지 보물 고창 스탬프 투어가 연장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또는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고창읍성 성곽길에서 본 공복무

단종 1년(1453년)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고창읍성. 조선 전기의 읍성 중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읍성으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호남내륙의 방어 기지로 사용되었다. 지역민은 이곳을 모양성으로 부르는데, 백제시기 지명인 모량부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단성놀이는 한바퀴 돌면 다릿병이 나고, 두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을 가진 고창읍성을 도는 전통 문

화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광 콘텐츠이다. 동쪽으로 단성놀이를 진행하다보면 공복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고창의 풍경이 펼쳐진다.

단성놀이를 마치고 성 내부 숲길에 들어서면 이내 울창한 대숲의 장관이 펼쳐진다. 이곳의 지명은 맹종죽이라는 대나무 품종이 이른 군락지라는 뜻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곳에서 야간에는 야간 조명을 활용한 환상적인 맹종죽립 제너레이티브 아트쇼가 일몰 후부터 22시까지 진행된다.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으로부터 차로 15분거리, 동식물 800여 종이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 운곡람사르습지는 인간이 떠난 자리를 자연 스스로가 생태 복원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공간이다. 곤충, 식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동식물 800여 종이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로 거듭

난 이곳은 2011년 람사르습지 인증을 받았고, 고창군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운곡람사르습지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인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으로 선정했다.

자연에 의해 환경이 스스로 복원한 국내 최초의 사례인 운곡람사르습지를 둘러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다. 다양한 생태탐방 코스가 마련돼 있는데 약 3.6km 길이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1코스가 인기다. 또한 친환경 경주차량 탐방열차 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탐방열차는 운곡습지 생태공원까지 탐방객의 발이 되어 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간직한 고창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